추사가 '금강경'을 썼다면…

동천 엄기철 제3회 서예 개인전
'나를 찾아가는 동행, 금강경 특별전'
10월 16~22일 서울 한국미술관



엄기철 作, '금강반야바라밀경' 72x143cm.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다양한 서체와 형태의 '금강경' 서예 전시가 열린다. 서예가 동천 엄기철은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인전 '나를 찾아가는 동행, 금강경 특별전' 을 개최한다.

엄 작가의 이번 전시는 2013년 서울미술관 기획초대전과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열린 '법정 스님의 향기로운 글 서화전' 에 이은 세 번째 개인전으로, 〈금강경〉을 주제로 한 작품 23점을 비롯해 게송, 경구 등 총 1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총길이가 11M에 이르는 12폭 추사체 〈금강경〉 한문 작품을 비롯하여, 19M에 이르는 '한글로 풀어쓴 금강반야바라밀경' 판본체 작품 등의 대작과 더불어 작은 종이에 극세필로 쓴 깨알 같은 글씨의 〈금강경〉까지 다양한 형태의 〈금강경〉을 선보인다.

19M 대작에서 극세필까지 다양
신행과 수행이 된 '금강경' 쓰기

"처음에는 나 자신을 위해 가볍게 시작한 작업이 수행이라는 경건한 자세로 이어지고, 그런 결과 다양한 형식의 〈금강경〉을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도 〈금강경〉의 깊은 뜻을 일 만분의 일도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한 작품을 쓰고 나면 또 새로운 서체와 형태의 〈금강경〉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쓰고 또 쓰면서 〈금강경〉의 깊은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예는 이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신행이고 수행이 되었습니다."

엄 작가는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서도 적극적인 신행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됐다. 흐트러진 자신을 바로보고자 2012년부터 〈금강경〉을 쓰기 시작했다. 〈금강경〉을 쓰면서 부처님 말씀의 가치와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됐고, 〈금강경〉을 쓰는 순간은 단순히 글씨를 쓰는 시간을 넘어서는 신행과 수행의 시간이 되었다. 신행과 수행이 쌓이면서 엄 작가는 서예가로서 좀 더 많은 대중에게 〈금강경〉을 알려야겠다는 원력이 자라기 시작했다. 엄 작가는 다양한 서체와 형태로 〈금강경〉을 쓰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금강경〉을 위한 전시를 기획하고 〈금강경〉 작품에 매진했다.

문예평론가 권상호는 "그의 붓길은 공(空)과 무아(無我)를 깨달아가는 수행의 길이다. 그의 연서(練書)는 부드러운 필검(筆劍)으로 금강처럼 견실한 획을 빚어내며 부처님의 변함없는 지혜를 캐나가는 구도의 과정이다"고 말한다. 엄 작가는 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 선문한 내용을 두고두고 음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금강경〉을 쓸 때는 한 번 사용한 붓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붓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엄 작가는 때때로 붓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종이 위의 괘선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일이 붓으로 그린다. 문장에도 생명이 있다고 믿는 그는 특히 경문(금강경)을 쓸 때는 일필이 끝날 때까지 식음을 거르기도 한다.

그의 작업실은 실험실이며, 때로는 선방이며 때로는 법당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空)과 무아(無我)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수행의 과정이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형태의 〈금강경〉을 서예로 만날 수 있어 서예계는 물론 불자들에게도 유익한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 작가는 부친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붓을 잡았고, 붓이 커지면서부터는 줄곧 추사의 글씨를 따르고 있다. 이번 전시의 〈금강경〉은 추사의 글씨로 보는 〈금강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엄 작가는 추사선생추모 전국휘호대회에서 장원(壯元), 초대작가로서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을 거쳐, 현재 (사)한국추사체연구회 부회장(副會長)을 맡고 있다. (02)720-1161

비상하는 거사들의 음성공양

선불남성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
10월 26일 오후 5시 나루아트센터



선불남성합창단은 지난 2003년 서울 조계사 어린이합창단 단원의 아버지들이 참여한 '거사 찬불가 교실' 이 모태가 되어 2007년 4월 창단한 남성합창단이다.

찬불가 · 가곡 · 가요 망라
'4성부 편곡' 첫 시도
BTS K-POP 선보여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우리만의 날갯짓으로 더 높게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감동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그런 무대를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선불남성합창단(단장 박주왕)은 10월 26일 오후 5시 서울 광진구 나루아트센터에서 제11회 정기연주회(지휘 민선희)를 개최한다.

'비상(飛翔)'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찬불가, 가곡, 가요 3부로 펼쳐진다.

△1부는 찬불가다. 기존 찬불가를 남성 4성부로 편곡하여 연주함으로써 기존 불교합창계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다.

△2부 가곡에서는 3월 KBS국악관현악단 제250회 정기연주회 '역사 콘서트 기록-백년의 봄' 에서 공연했던 별, 하나 된 대한민국을 국악음악그룹 놀이터와 협연한다.

△3부 가요에서는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가요 명곡들을 선보이며 깊어가는 가을을 관객들과 함께 한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KBS국악대상 연주팀부분 수상에 빛나는 음악그룹 '놀이터' 의 초청공연이 있고, 2부와 3부 사이에는 BBS 국악대상 연주팀 부문 수상에 빛나는 음악그룹 '놀이터' 의 초청공연이 있고, 2부와 3부 사이에는 BBS불교방송합창단이 찬조 출연한다.

3부 공연 이후 앵콜무대에서는 익살스럽고 코믹한 트로트메들리와 BTS의 K-Pop 등을 선불남성합창단의 새로운 음성으로 선보인다.

선불남성합창단은 지난 2003년 서울 조계사 어린이합창단 단원의 아버지들이 참여한 '거사 찬불가 교실' 이 모태가 되어 2007년 4월 창단한 남성합창단이다. 2009년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군장병 위문공연과 크고 작은 사찰의 음성공양을 해왔다. 2007년 10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국가브랜드 공연 '네 줄기 강물이 바다로 흐르네' 에 출연했으며, KBS국악관현악단,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시 오케스트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경기도립국악단 등고의 협연을 통해 불교계 안팎에서 꾸준히 활동해왔다.

지난 3월에는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KBS 국악관현악단 제25회 정기연주회 '역사콘서트-백년의 봄' 에 출연했으며, 4월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KBS 봄꽃음악회' 의 '봄, 국악을 더하다' 에서 KBS국악관현악단과 협연했다.

현재 30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선불교남성합창단은 테너, 테너 2, 바리톤, 베이스 영역으로 나눠진 합창단은 대학교수, 공무원, 교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02)2049-4700 박재완 기자

'창령사 터 오백나한,~'展 부산 전시

11월~2020년 2월 부산시립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상태)은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부산시립박물관 기증전시실에서 특별전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전을 개최한다.

국립춘천박물관은 9월 26일 부산시와 전시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특별전으로 개최된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전을 이어간다. 희노애락의 다양한 표정을 머금고 있는 나한상들은 지난 전시에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시민들과 만나게 됐다. 전시기간 중에는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부산을 찾는 내외국인 및 국빈들도 오백나한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태 국립춘천박물관장은 "강원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거듭난 창령사 터 오백나한의 부산 전시는 고려시대 강원 불교조각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강원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033)260-1500

박재완 기자



바위뒤에 앉은 나한.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HOT

- 친환경적
- 단열효과 탁월
- 구조변경 용이
- 시공비 대폭절감
- 습기에 강함
- 내구성 우수



☎ 문의 : 민성기업 (구,대진기업)
010-2628-9944